

[ 사회 ]

# 광주 교통 복지 평가 최하위

## 장애인·노인 등 약자 배려 부족...전남은 9개 道 중 3위

장애인·노인, 어린이 등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들을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 평가에서 광주시는 7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남은 9개 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여객시설과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시·도별 교통복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시도된 교통복지 평가에서 광주시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접자블록 설치 등 도시철도역 수직이동 동선 확보율에서 1위를, 저상버스 보급률에서는 4위를 차지했으나 나머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58.8점으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특히 인구 1만명당 어린이(14세 이

하) 사고율과 고령자(65세 이상) 사고율, 보행자 사고율 지표에서 1위 도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전남도는 여객시설과 교통수단 등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평점에서 64.8점으로 9개 도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저상버스 보급율은 7위, 휠체어 장착장비 장착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과 고령자·어린이 사고율에서는 각각 6위를 차지했다. 시·도별 1위는 서울시와 경기도였다.

교통복지 점수는 터미널과 버스 등에 설치된 장애인·노약자 이동 시설 여부 등 종합평가에서 58.8점으로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급률, 고령자·어린이 사고율 등에 항목별 가중치를 부과해 산출됐다.

국토부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이동 편의 실태와 문제점을 매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교통복지 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저상버스 구입자금 지원, 보행 우선 구역 시범 사업지 우선 선정, 장애인 택시 구입 및 운영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 약자에 대한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2007년 기준 전체 인구의 24.3% 수준인 1천19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 학부모 학교 출입 제한한다고?

## 교통법 제정 추진에 찬·반 논란

교원단체가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원을 폭행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권보호법(안)'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은 학교 출입시 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시·도교육감과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 밖에 ▲학교교육부흥조정위원회 설치 ▲교권 침해사

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제를 발표한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교통의 입법 시도가 교권 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지만 반발도 적지 않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 출입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 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서 교권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 고개 내미는 햇살 7월 3일 (음 6월 1일) <전국날씨>

흐리고 한 두차례 비가 온 후 점차 개겠다.

광주	비후 맑음	22~27°C
부산	비후 맑음	22~25°C
대구	비후 맑음	20~24°C
대전	비후 맑음	20~26°C
전주	비후 맑음	21~28°C
서울	비후 맑음	21~26°C
인천	비후 맑음	21~27°C
경기	비후 맑음	20~26°C
충청	비후 맑음	21~27°C
강원	비후 맑음	20~26°C
울릉도	비후 맑음	22~26°C
독도	비후 맑음	22~27°C
제주	비후 맑음	22~28°C
제주	비후 맑음	20~27°C
제주	비후 맑음	17~23°C

서울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남해동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2:13 썰물 < 07:35  
목포 밀물 < 14:06 썰물 < 19:31  
여수 밀물 < 09:01 썰물 < 03:06  
여수 밀물 < 21:45 썰물 < 15:05

▲해돋이 05:22 ▲해질 19:51 ▲달돋이 05:00 ▲달질 20:17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씨						
최저/최고	21/29	22/29	22/29	22/30	22/30	22/31

# "음해성 글에 명예 훼손 당했다" 유정심 남구의회 의장 수사 의뢰

유정심 광주 남구의회 의장이 인사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남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7일 게재된 글은 작성자 '신XX'로 "유 의장이 7월에 이뤄질 남구청 정기 인사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해 정당한 남구 행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또 지난해 남구의회 속기사 신규채용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남구청에 삭제 요청했으며, 경찰에 수

사를 의뢰했다. 이 글은 유 의장의 요청에 따라 게재 당일 삭제됐다.

유 의장은 "인사와 관련, 남구청장과 만나서 상의해 본 적도 없는데 왜 음해성 글을 올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속기사 채용 과정에서도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속기사는 한달 단위로 계약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개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누가 거액의 뇌물을 주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유 의장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글 작성자의 신원을 추적 중이다. /강필성기자 kps@



# 폭우에 잠긴 논

2일 오후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80mm가량 비가 내리면서 광주시 남구 양촌동 일대 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30분 현재 신안군 지도읍 78mm, 해남 64.5mm, 순천 63.5mm, 화순 62.5mm, 광주 46mm의 비가 내렸으며, 3일까지 10~40mm 비가 더 내린 후 점차 갠 것으로 보인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위생 기준 위반 학교급식소 등 9곳 적발

광주·전남지역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음식점과 학교급식소 등 9곳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전남 학교급식소와 매점, 식재료 공급업소, 등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분기 합동지도점검 결과, 시설기준 및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9곳에 행

정처분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점검대상 업체는 ▲도시락업체 2곳 ▲학교매점 4곳 ▲식재료 공급업소 90곳 ▲학교급식소 31곳으로, 도시락업체와 학교급식소 각 1곳, 식재료 공급업소 7곳이 적발됐다. /인현주기자 ahj@

# 지리산 반달가슴곰 숨진 채 발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난해 방사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지리산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러시아 연해주에서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한 반달가슴곰 6마리 중 한 마리가 지난 1일 경남 산청군에서 폐사한 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반달곰 사체가 울무나 밭 등에 의한 외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연사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송동주 멸종위기종복원센터장은

"이번에 발견된 반달가슴곰은 생후 18개월 가량으로, 체중은 20kg 정도이며 겨울잠에서 깨어난 뒤 도토리과 새싹, 나무순 등 먹이를 찾아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 가는 등 적응을 잘 해 온 편이었다"며 "새끼의 경우 면역력 등이 약해 자연생태계 내 순환과정 중 치사율이 60~70% 가량으로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위해 방사된 27마리 중 6마리가 숨졌고 한 마리는 실종됐으며, 현재 20마리(4마리는 증식용)가 생존해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광주 이외 지역 교사 전출 성사율 20% 못넘어

매년 400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광주 외 지역으로 전출을 원하지만 성사율은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9월 1일자)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사한 타 시·도 전출 희망자는 초등 105명, 중등 78명 등 모두 183명이다. 상반기 희망자 238명(초등 149명·중등 89명)을 포함하면 올해 421명이 타지역 근무를 희망했다. 상반기 희망자 중 타 시·도 전출이 성사된 경우는 초등 56명, 중등 26명

등 82명으로 비율은 34.5%다. 그러나 대체로 하반기에 성사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연간 전출 비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199명(초등 109명·중등 90명)이 신청해 48명이, 하반기 172명(초등 105명·중등 67명) 중 20명이 각각 전출했다. 2007년 전체 371명 중 18.3%인 68명이 타 지역으로 떠났으며, 2006년 364명의 전출 희망자 중 17.0%인 62명이 근무지를 옮겼다.

올해 하반기 기준 전출 희망자는 서울이 102명(55.7%)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9명·15.8%), 경기(28명·15.3%), 인천(9명·4.9%) 순이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토 남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enpharm.co.kr>

큐텐 **큐텐** **큐텐**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습 성분 함유. 인공적으로 합성된 성분은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성분은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성분은 없습니다. 인공적으로 합성된 성분은 없습니다.

아연의 보습